

# 나는야 '라운제나'에 사는 희망의 마법사



《영모가 사라졌다》 공지희 지음·오상 그림 | 비룡소 | 8,500원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갖고 애들을 놀리느냐는 어른들이 많은데 저 골목에서도 만날 수 있는 세계가 환상세계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판타지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 글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공지희(42) 씨는 아이들보다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다. 그가 쓴 《영모가 사라졌다》는 비룡소가 주관한 아동문학상 황금도깨비상 장편동화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 학자나 의사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갈등하던 영모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 영모를 찾다가 환상세계인 '라운제나(즐거운 나)'로 들어가게 되는 병구의 목소리를 담은 이 동화는 생활동화와 판타지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면서 흥미진진한 세계로 아이들을 초대한다.

“8.9개월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에요. 요즘 아이들 고민을 담으려고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 성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강남 서초 등지에 사는 엄마들은 좋은 학벌에 품성도 좋은 훌륭한 분들인데 하루에도 몇 개씩 과외를 시키는 거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지해 보이죠.”

평소 아이들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는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아이들 말맛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의 불만스러운 현실, ‘엉덩이는 매를 때리기 좋으라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현실감 있는 목소리는 가엾게 들리기까지 한다.

“저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쪽 이야기를 먼저 써요. 여러 소재를 골고루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을 볼 때 글이 쓰고 싶어지죠.”

순 우리말로 ‘즐거운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운제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만들게 된 희망의 세계. 그러나 그가 말하는 판타지 세계는 단순흥미의 공간이기보다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화해의 장소다.

“대학 시절에 아동문학 동아리에서 공부했거든요. 결혼하면서 글쓰기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동화창작을 공부하면서 작가의 꿈에 도전해 봤어요. 순수 생활동화보다는 판타지 동화 소재만 자주 떠오르네요.”

열띤 목소리로 판타지 동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이미 《마법의 빨간 립스틱》(푸른책들)과 《별라와 하양투성이 공주》(푸른책들)라는 판타지

코드의 동화를 발표한 기성작가. 어린 시절부터 미카엘 엔데, 아스트리트 린드그렌의 동화에 푹 빠져 지냈기 때문인지 상상의 세계에 대한 애착이 큰 그는 동화속 영모와 병구 캐릭터를 ‘안아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울다가도 웃는 아이들 세계 있잖아요. 그 어디에 치중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든 생각들, 꿈, 고민들을 모두 담아내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위로받고, 어른들이 또 다른 교훈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공지희 씨는 출판계통이 집착하고 있는 동화적 코드에서 벗어나 이 세상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학교, 집, 학원을 뱅뱅 돌아야 하는 바쁜 스케줄을 가진 요즘 친구들. 게임과 만화에 중독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소녀 같은 아줌마가 보내 준 ‘라운제나’ 행 티켓을 선물한다. **★작가노트**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